

광양항 불산 제조공장 백지화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들 반대

영국계 투자사 건립계획 철회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건설이 추진됐던 불산(HF·불화수소산) 제조공장 건립계획이 백지화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불산 제조공장 유치 계획을 사업

자가 포기해 전면 백지화됐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는 "지난 2월 불산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항만공사와 투자협약을 맺은 영국계 칼루즈(Kaluz)그룹의 자회사인 멕시켄 측이 지역에서

불산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광양항에 투자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건립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건을 계기로 공장 건립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건립에 반대하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전남도, 국회의원까지 건립반대에 동참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이상조 사장은 "기업 유치는 물론 유치 포기에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이유로 지역에서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광양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멕시켄은 오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000여원을 들여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에 연산 13만5000t 규모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투자유치 협약을 항만공사 측과 맺은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월드아트 서커스페스티벌 과다정산 문제

광양시의회, 법적 대응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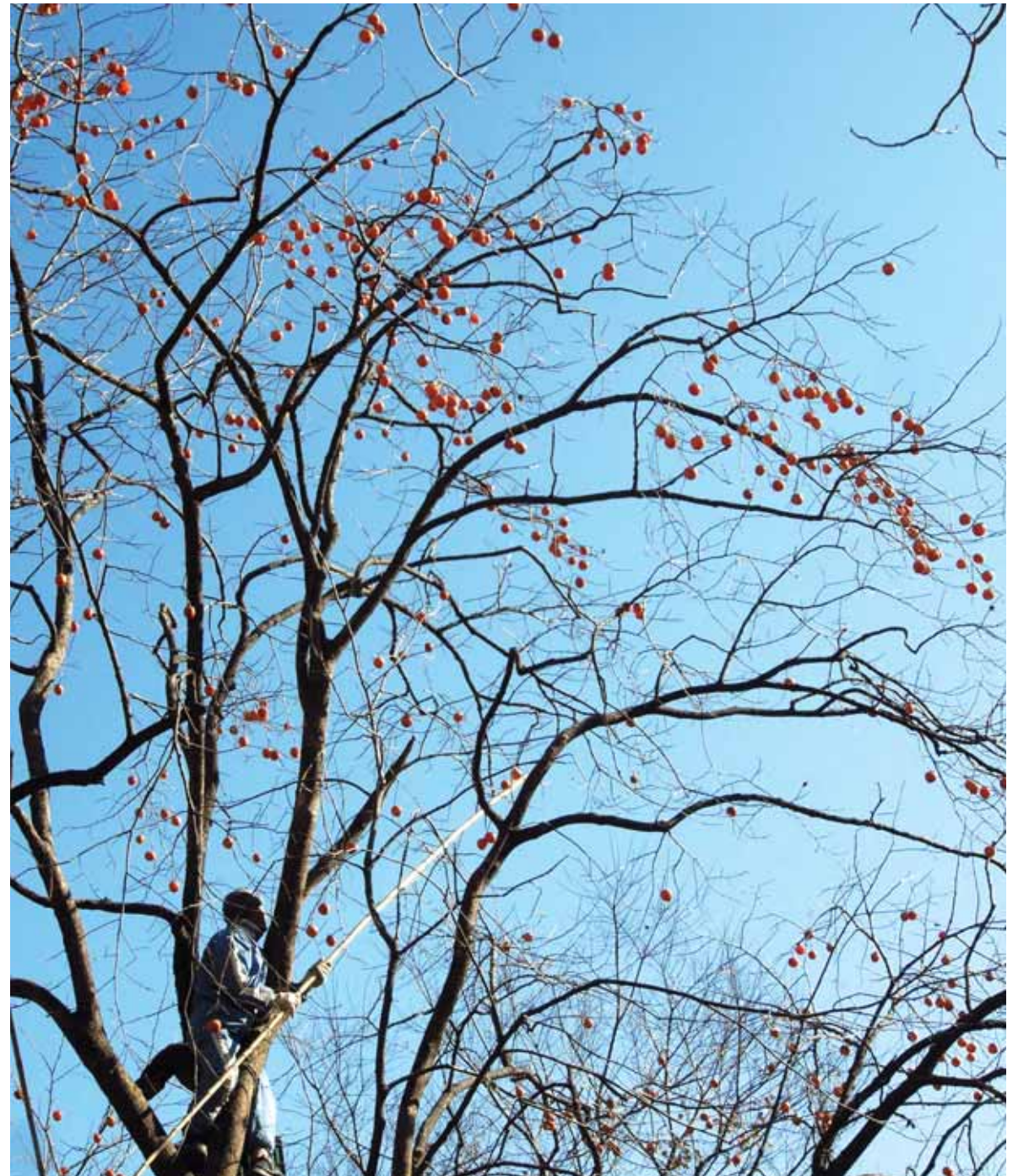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가 '2012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토록 광양시장에게 요구했다.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의원간담회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8월 12일 끝난 행사가 3개월

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는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현재 TF팀에서 정산검사를 세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대행사 측에서 광양시와 조직위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

기해 지방자치법상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위구성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서커스 정산 관련 TF팀 보고서에 따르면 대행사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행사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1차 검증 결과 25억원 가량 과다하게 정산돼 감액 및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MBC미술센터에서 광양시와 조직위를 상대로 행사 용역비 미지급분 23억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제기해 광양시(조직위)와 대행사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 영재교육원 '우수'

순천 영재교육원(교육장 박문재)이 최근 2012년 영재교육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 영재교육원은 ▲교육원 출신 선배와의 만남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 마련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활성화 ▲영재스쿨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뇌교육 운영 등 다른 영재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주렁주렁 흥시 달렸네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인근에서 한 주민이 긴 장대를 이용해 흥시를 따고 있다. 동아시아 특유의 과수인 감은 꽃감과 흥시 등으로 다양하게 먹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장흥 수문·함평 석두·강진 서중 등 3곳

어촌 체험 우수 마을 선정

장흥 수문마을과 함평 석두마을, 강진 서중마을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장흥 수문마을은 매년 '정남진 물축제'와 연계해 '키조개축제'를 개최하고 키조개를 테마화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19만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2억3700만 원의 체험소득을 올리고 있다. 함평 석두마을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갯막이 체험, 참숯 뽕장이 잡기체험 등 광활한 갯벌체험을 실시해 체험객 3만9000여 명을 유치해 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 서중마을은 청자빚기 체험장, 자연식 김 건조체험 등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객 1만5000여 명을 유치해 5000여만 원의 체험소득을 올리고 있다. /장흥=김은중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보성군은 지난 26일 벌교읍 장양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벌교에 대규모 스포츠센터 들어선다

장양리 일원 2만㎡ 125억 투입 2014년 완공

오는 2014년 보성군 벌교읍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 보성군은 지난 26일 벌교 스포츠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스포츠센터는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125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 9803㎡, 건축 연면적 511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경기장과 1033석의 관람석, 1500석 규모의 야외무대 등을 갖는다. 2014년 벌교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각종 대회 및 전시훈련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벌교 꼬막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벌교=김은성기자 kim0686@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TV조선 뉴스쇼

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할아버지·할머니 신명잔치

곡성 옥과농협, 300여명 초청 나눔한마당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28일 옥과면사무소 율리관에서 관내 노인 300여명을 초청,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경로잔치를 펼쳤다.<사진> 옥과농협 임직원과 한마을봉사대, 여성조직인 부녀회·주부대·농가주부 들은 3년째 경로잔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로잔치는 푸짐한 음식과 함께 노름마치 공연, '고래야 공연단' 등 신명나는 문화공연을 곁들여 흥을 돋웠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